

건설시장개방, 비상



전문건설업 '96년 1월부터 외국업체 진출 허용

'94년부터 국내 건설시장도 국제·개방화 추세에 편승, 부분적으로 개방됨에 따라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하게 됐다. '96~'97년사이 정부 조달시장이 개방되면 국내 공공공사(연간 8조원)의 46.4%인 3조7천여억원의 건설시장에서 외국 업체와의 치열한 수주경쟁이 우려된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월 16일 새벽 1시, 지난 7년여간 끌어온 UR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국내 건설산업계도 국제·개방화 추세에 편승,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하게 됐다.

건설시장개방은 UR서비스협상(민간 건설시장)과 UR와 연계 논의되어온 GATT 정부조달협정(공공건설시장)등 두 갈래로 나뉘어 타결됐다.

우리나라는 조달협정 미가입 상태에서 GATT 정부조달협정 협상에도 참여해 왔는데 '94년도중 가입할 예정이고, UR 발효와 함께 42개 중앙정부기관과 9개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23개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를 '97년부터 외국 건설업체에 개방해야 한다.

'94년도부터는 그동안 국내 건설업체와의 합작투자만이 허용됐던 일반건설업의 외국의 투자가 100% 단독투자가 가능하게 되었다.

GATT 정부조달확장협상 건설분야 최종 타결내용을 보면 공공건설공사를 기존 회원국인 미국·일본·EC 등 20개국의 경우 오는 '96년 1월1일부터 개방되 우리나라는 신규가입국인 점을 감안해 오는 '97년1월1일부터 개방하기로 합의 했으며, 우리나라 건설업체의 외국 시장 진출은 '96년 1월1일부터 가능하다.

개방범위는

① 중앙정부의 경우 건설공사는 500만SDR(약 53억원) 이상, 건축설계 서비스는 13만 SDR(약 1억5천만원) 이상

② 지방정부는 건설공사 1천 500만SDR(약 160억원)이상, 건축설계 서비스는 20만SDR(약 2억2천만원)이상

③ 정부투자기관은 1천500만 SDR(약 160억원)

이상으로 타결됐다.

이같은 국내 건설공사 개방 규모는 '92년 기준으로 최소 25%(3조2천600억원)에서 장기 계속공사분을 감안할 때 최고 40%(6조 4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대한 건설협회가 잠정 분

석했다.

그밖에 전문건설업은 '96년 1월부터 외국 업체의 진출이 허용되고, 지사설립을 통한 외국 업체의 국내 진출은 일반건설업의 경우 '96년1월부터, 전문건설업의 경우 '98년1월부터 허용된다. 건축설계 및 건설기계 장비 임대업도 '96년부터 개방된다.

외국인의 국내 감리 활동을 현재 건설기술관리법규정상 제한을 두지 않고 있어 UR 서비스 협상에서 별도로 양허하지 않았으며, 기타 엔지니어링 활동은 외자도입법에서 허용하는 한 과기처의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의 활동 주체로 신고를 하면 외국인이 국내에서 엔지니어링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94년 건설업 개방업종

업종명	개방시기	현행
①건축물 해체 공사업 ②토공사 및 정지 공사업 ③달리 분류되지 않은 지반조성 공사업(채광에 관련된 각종 준비공사 등) ④건축물 자영 건설업 ⑤주택 도급 건설업 ⑥사무 및 상업용 건물도급 건설업 ⑦공업용 및 유사 산업용 건물도급 건설업 ⑧달리 분류되지 않은 건물종합건설업(여객 및 화물터미널 건설 등) ⑨도로 건설 및 포장공사업 ⑩교량 터널 및 철도 건설업 ⑪수로, 댐 및 급배수시설 건설업 ⑫달리 분류되지 않은 토목 건설업(스타디움 공사 등)	'94년1월1일 합작의무 폐지	국내에서 동종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와 합작하는 경우만 허용

정부는 외국인의 토지 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개정 오는 3월께부터

①업무용 토지

②임직원용 택지
③부대시설부지 등
외국인의 토지 취득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시장개방에 따른 한국의 경쟁력

한국의 종합경쟁력은 선진국의 60~70%의 수준

건설시장의 국제화·개방화로 나아갈 경우 국내 건설업체가 외국 기업의 국내시장 잠식을 막거나 해외시장을 공략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국제 경쟁력이라 할 수 있다.

국내 시장이 개방되더라도 노동집약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시공분야의 경우 국가간 인력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국내 인력을 활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외국 건설업체가 국내 시장을 크게 잠식하는 사태는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지만 부가가치가 높은 설계와 인텔리전트 빌딩 건설 등에 소요되는 첨단 전문 건설업은 상당 부분 시장을 내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기술력도 중요하지만 자금력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좌우돼 자본력

이 약한 우리 업계는 앞으로 닥칠 사태를 놓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실정이다.

싼 금리와 풍부한 자금조달 능력을 무기로한 외국 업체는 돈이 많이 들어 국내 업체가 선뜻 대들지 못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은 물론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대형공사분야까지 대거 진출할 것으로 보여 국내 업체는 자칫 하청업체로 전락할 소지가 없지 않다는 것이다.